

2025 새해 이렇게 구복규 화순군수

“화순형 인구 정책으로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총력 대응”



만원 임대주택 사업, 24시 어린이집·자국민 전담 다문화팀 운영 지속 한국난 산단 조성 착수...바이오·백신 산업 육성 의료 산업 메카 도약

“새로운 미래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15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건축재정 기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혼란한 국내 정치 상황 또한 불안한 요소지만,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갈망하는 우리의 열정은 화순 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속도를 높여 화순 중흥의 새역사”를 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군수는 이를 위해 올해를 화순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하며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라는 군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을 발표했다.

구 군수는 먼저 ‘화순형 인구정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화순군은 현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 군만의 차별화되고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으로 인구절벽

의 시계를 반드시 거꾸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만원 임대주택 사업과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자국민 전담 다문화팀 운영과 같은 혁신 정책을 계속 발굴해 추진해 나가고, 전남도와 함께 출생기반수당을 지급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겠다”며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과 신입생 입학 축하금 지원 등 화순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고 설명했다.

매력 넘치는 관광도시를 만들어 관광객 500만 시대를 완성하겠다는 복안도 내놔다.

구 군수는 “관광은 생활인구와 직결된다. 특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를 유치해 생활인구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봄에는 화순천 꽃강길과 남산공원을 중심으로 봄꽃 축제를 개최하고, 가을에는 고인돌 축제를 개최

해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산공원-정촌신작로-만연천-화순천-개미산 전망대까지 빛과 꽃이 어우러진 야간경관 벨트를 조성해 밤낮으로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한다. 또 전국 최대 규모의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해 60만 명에 달하는 파크골프 인구를 화순으로 유인하는 구상도 내비쳤다.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돈바는 부자농촌을 만드는 데도 심혈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구 군수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농업 분야에도 체질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320억원 규모의 한국난 산업화단지 조성사업을 신속하게 착수해 농업혁신을 앞당기겠다”며 “농산물 복합유통센터와 농산물 수출플랫폼을 구축해 우리 농산물의 수출과 유통을 책임질 거점 단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백신 산업을 육성해 첨단 의료산업의 메카로 도약한다는 포부도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하고, 국내·외 최고의 바이오 선도기업을 유치해 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또 생물의약 제2·제3산업단지를 조기에 착공하고 화순군 바이오·백신 산업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도 힘을 쏟는다.

신산업 기반을 다지고, 민생경제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1월 한 달 동안 화순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5%로 상향하고, 소상공인 용자금 이차보전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박람회 참가비를 지원해 신규시장 진출의 마중물 역할을 나선다. 이 외에도 문화 주치의제와 마을 주치의제를 연계 운영해 어르신들의 문화적 갈증과 건강을 보살피는 동시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 복지분야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방침이다.

끝으로 구복규 화순군수는 “지난 2년 반 동안 화순군이 선포한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자신감을 얻었다”며 “군민 중심의 행정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군정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전훈 선수단에 ‘강진품에 온 군민’ 홍보

강진군, 문화·관광 시설 관람료 면제·할인 혜택

강진군이 동계 전지 훈련 시즌을 맞아 전국에서 찾아온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강진품에 온 군민’ 제도를 홍보하며 지역 생활 인구 확대와 문화·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진군은 은화한 기후와 수준 높은 스포츠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매년 동계 전지훈련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7개 종목에서 5,100여명의 선수단이 찾을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강진품에 온 군민’ 제도의 혜택을 알리는 홍보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강진품에 온 군민’ 제도는 강진군과 연고가 있는 출향민, 관광객, 강진에 관심이 있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하고자 마련된 온라인 기반 제도다.

회원 가입 시 발급되는 ‘강진품에 온 군민증’을 통해 다산박물관, 고려청자박물관 등 군이 관리하

는 문화·관광 시설 관람료가 면제되거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마일리지 적립 제도를 통해 강진군 지역화폐로 전환하거나 농특산물 구매에 사용할 기회도 제공한다.

이번 홍보 활동은 선수들과 관계자들에게 강진의 매력을 알리고, 강진과의 지속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 강진군은 선수단 숙소 및 훈련 시설을 방문해 직접 제도를 설명하며 가입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강진의 특산품과 관광지를 소개하는 자료를 제공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품에 온 군민’ 제도는 외부인을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이며, 더 많은 분이 강진의 매력을 느끼고,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길 바란다”며 “‘일 잘하는 강진’이라는 슬로건 아래서 군민들께서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문학 향기 담는다...장흥군, 한승원 생가 복원 속도

최근 생가 부지 매입 완료

딸 한강 작가 어린시절 추억 서려

이정준 생가 등 연계 관광코스 조성

장흥군은 회진면 신상리에 있는 한승원 작가 생가(사진)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생가 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한승원 작가는 현대 소설 문학의 거장이자 노벨문학도시 장흥을 대표하는 문인으로 ‘아재아재바리아제’, ‘불의 딸’, ‘초의’ 등의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 한승원 작가의 딸인 한강 작가가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함에 따라 부친 한승원 작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장흥을 찾고 있다.

장흥군은 유서 깊고 풍부한 문학 자산을 바탕으로 2008년부터 전국 최초 문학관광기행특구로 지정돼 17년간 이를 유지하고 있다. 한승원 생가가 복원될 경우 이정준 작가 생가, 한



려왔을 때 시간을 보낸 곳으로 당시 감성과 추억이 깃든 콘텐츠를 결합해 관광객들에게 문학 여행의 즐거움을 더할 계획이다.

장흥군은 유서 깊고 풍부한 문학 자산을 바탕으로 2008년부터 전국 최초 문학관광기행특구로 지정돼 17년간 이를 유지하고 있다. 한승원 생가가 복원될 경우 이정준 작가 생가, 한

승원 문학 산책로 등과 연계해 더욱 풍성한 문학 기행 관광코스가 조성될 것으로 장흥군은 기대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한승원 작가는 장흥을 대표하는 소설가이자 한강 작가의 뿌리”라며 “생가를 노벨문학도시 장흥의 대표적인 문학 자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담양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농기계 46대 추가 확보...농사용굴삭기·드론 면허 교육비 지원도

담양군은 이상기온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소득 보전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활성화와 계획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담양군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정책을 올해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해 임대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지난해 임대료 50% 감면을 통해 1억여원의 농가 경영비 절감 효과를 거두며 영세농에게 도움이 됐다.

이웃도 노후 농기계 대체사업 및 지난해 4월 개소한 서부지소 농기계 추가확보를 위해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트랙터를 포함한 26종 46대를 구매, 원활한 임대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한기를 이용해 농기계임대사업소

회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소형건설기계(농사용굴삭기, 지게차 등) 면허와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비 일부를 지원한다. 농기계지원팀 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기계 안전 전문관 역량 강화 교육도 계속 추진한다.

오지마을을 위한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도 연 2회 운영해 현장 고장진단 및 점검 지원,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농기계가 필요한 농업인을 위한 찾아가는 임대 서비스 및 영세농·고령인을 위한 영농 대행 등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서비스를 적극 운영해 만족도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나주 삼색유산놀이·앙암바위 전설 현대 무용으로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 선정

비상무용단 ‘K-풍류...’ 창작 공연

지역 대표 관광문화상품 육성

나주 삼색유산놀리와 영산강 앙암바위 전설이 현대 무용극으로 창작된다.

나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공모에 ‘비상무용단’이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공연·예술 생태계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다.

나주시는 공모 선정을 통해 확보한 국비 1억 5000만원을 포함해 사업비 2억5000만원을 들여 콘텐츠 제작에 나선다.

나주시와 협업하는 비상무용단은 동신대학교 박종인 공연예술무용학과 교수가 이끄는 지역 예술단체로 지난 2007년 창단했다.

창단 이래 제28회 전국무용제 대통령상·최우수 연기상·무대예술상 등 다수의 상훈을 수상했다.

비상무용단은 나주 고유의 문화유산인 삼색유산놀이와 삼국시대 아랑사와 아비사의 슬픈 사랑 이야기가 깃든 앙암바위 전설을 소재로 한 창작공



나주목 향청에서 열린 나주 삼색유산놀이 공연 모습.

(나주시 제공)

연 ‘K-풍류 나주의 전설-청명(淸明)’을 선보일 예정이다.

삼색유산놀리는 음력 3월 봄이 되면 산에 올라가 산신제를 지내고 춤과 노래를 즐기며 먹고 마시는 놀이 문화이다. 나주읍성에 살았던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양반, 상민, 천민까지 세 계층이 신분을 가리지 않고 하나의 집단으로 모여 놀았던 민속놀이로 여성들의 대표 축제였다.

앙암바위 전설은 애정을 나눴던 아랑사와 아비사를 시기한 마을 사람들이 두 남녀를 앙암바위에서 차례로 죽음에 이르게 한 슬픈 사랑 이야기가 전해져온다.

바위 절벽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모습이 눈에 잘 보이는 사람은 사랑이 이뤄진다는 속설이 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함평군, 건축물 해체 전문심의위 운영

건축사 등 민간 전문가 참여 예산 절감·행정 효율성 제고

함평군은 건축물 해체 허가 심의를 전담하는 건축물 해체 전문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함평군 건축위원회가 해체 허가 안건을 심의했지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전담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번에 신설한 전문심의위원회는 건축 구조와 해체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총 5명으로 건축직 사무관을 포함한 당연직 1명과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사, 교수 등 민간 전문가 4명이 참여한다. 임기는 2027년 10월

20일까지다.

위원회는 건축물 해체 심의를 통해 피해 방지와 사고 예방 등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소모를 줄이고, 심의 기간 단축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 전문심의위원회는 군민의 안전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해체 공사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성군, 매주 수요일 ‘야간 건축 민원 상담’

장성군이 업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군민을 대상으로 군청 1층 민원봉사과에서 매주 수요일 ‘야간 건축민원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운영 시간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이며

사전에 민원봉사과 건축인허가팀(061-390-7499)에 상담 예약을 해야 한다.

주요 상담 내용은 건축물 용도별 입지 가능 여부, 건축 인허가 절차 안내, 건축계획·시공감리·유지관

리 등 민간 건축 관련 전문상담 등이다. 또 각종 건축 분쟁에 따른 건축법규 적용과 해석을 지원하고 무허가·위법 건축물 시정 방향 등도 안내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건축 행정 관련 민원은 전화상으로 설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대면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